

학령기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인과모형*

The Causal Model of Mother's Parenting and Children's Locus of Control to Self-Control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경님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Prof. : Kyung-Nim Lee

◀ 목 차 ▶

I. 서론	IV. 논의 및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결과 및 해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 causal model of mother's parenting and children's locus of control to self-control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bjects were 582 children of 4th, 5th and 6th grade. The instruments were Self-Control Rating Scale for Children,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and Parenting Scal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Children's locus of control, mother's warmth-acceptance and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mother's education level and children's sex predicted children's self-control. 23% of the variance of children's self-control was explained by these variables.

2) Mother's warmth-acceptance had a direct and an indirect positive effect through children's locus of control on children's self-control and was the first contribution factor. Children's locus of control had a first direct effect on children's self-control.

3) Mother's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had a direct and an indirect negative effect through children's locus of control on children's self-control. Mother's education level had a direct and an indirect effect through

* 이 논문은 2001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연구기초자료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hildren's locus of control on children's self-control. Children's sex had a direct and an indirect effect through mother's rejection-restriction on children's self-control. Mother's rejection-restriction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children's locus of control on children's self-control. Family income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mother's parenting on children's self-control. Father's education level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mother's permissiveness- nonintervention on children's self-control.

주제어(Key Words): 자기통제(self-control), 내외통제소재(locus of control), 어머니의 양육행동(mother's parenting)

I. 서론

우리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타인을 고려하여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성취 지향적인 사회에서는 즉각적인 욕구나 충동을 제지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위하여 인내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바람직한 사회적응과 성공적인 지적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기통제가 지적되고 있다(송명자, 1995; Rose, 1991). 자기통제란 스스로 상황적인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이경남, 2000). 자기통제가 떨어지는 아동은 인지적 과제 해결에 산만하여 낮은 학업성취를 보일뿐만 아니라(Feldman & Wentzel, 1990) 부모나 교사에 반항적이며 또래관계에서도 공격적이고 파괴적,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성향은 청년기에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Beckwith, Rodning & Cohen, 1992; Rose, 1991). 반면 자기통제된 아동은 이후 청년기에도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며 성인기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대인관계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Hunter & Hunter, 1984; Newman, Casri, Moffit, & Silva, 1997; Schoda, Mischel, Peake, 1990). 그러므로 적절한 자기통제의 발달은 아동이 장기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후 청년이나 성인의 성공적인 삶을 예측하는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chaffer, 1999). 지금까지의 자기통제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통제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모형(Bandura, 1977; Kopp, 1982; Loevinger & Wessler, 1970)이 제시되었고 자기통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자기통제기술이나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이에 대한 효과분석연구(이경남, 1997; Kendall & Braswell, 1985; Rose, 1991)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기통제가 아동과 청소년의 성공적인 지적 성취 및 바람직한 사회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에 비해 아동의 자기통제의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최근까지 아동의 자기통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체로 행동제지(inhibition of action), 순응(compliance), 유혹저항(resistance to temptation), 만족지연(delay of gratification)등을 자기통제의 중심 행동으로 다루고 있다(송명자, 1995; Harter, 1983). 이들 연구들에 의해 먼저 자기통제의 발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령을 이해하고 하던 행동을 멈추는 행동제지능력은 4세경이 되어야 발달되나 천천히 행동하라는 지시에 따르는 행동제지는 초등학교 입학 무렵인 6세경에 거의 발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ard, 1973). 출생에서 자기조절(self-regulation)을 획득하게 되는 아동초기까지의 자기통제 발달의 모형을 제시한 Kopp(1982)는 유아기에 출현된 자기통제는 지적성숙과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 초등학교를 입학할 무렵이면 아동은 상황에 적절하게 통제된 행동을 보이며, 계획된 자기조절도 가능하다고 본다. 아동의 만족지연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Mischel & Mischel, 1983; Toner & Smith, 1977)에 의하면 자기통제책략은 학령기동안 상당히 발달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더 큰 보상

을 얻기 위하여, 유혹적이지만 금지된 대상에 주의를 주지 않거나, 회피하는 행동등의 초보적인 전략은 학령기초기에 발달되기 시작하여 아동기 중기쯤이면 대상의 유혹적인 속성과 관계없는 추상적인 생각을 하여 유혹을 인내하는 좀더 정교한 전략으로 발달된다. Mischel과 Mischel(1983)의 연구에서 3~11세 아동들에게 만족지연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쓰느냐고 질문했을 때 유아기 아동들은 효율적인 전략의 자발적 사용은 불완전하였고, 아동 중기 아동들은 성공적인 만족지연 전략을 제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11세 아동들의 경우, 추상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자기통제 전략 사용은 완전하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좀더 복잡한 지연의 원칙에 근거한 자기통제 전략의 사용은 형식적 조작기에 나타나는 가설적 추론능력, 추상적 사고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능력이 습득되는 아동후기 이후, 청소년 초기가 되어야 가능하다(Berk, 1997; Schaffer, 1999). 자기통제에 대한 남아와 여아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일관성이 없었다.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통제가 높다는 연구(이경남, 2001; Kendall & Wilcox, 1979; Humphrey, 1982)와 자기통제는 남아와 여아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허수경·이경남, 1996; Schwarz, Schragger & Lyons, 1983)로 일치되지 못하였다.

한편 아동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노력에 의하여 변화시키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자신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외통제소재는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이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내외통제소재란 행동결과에 대한 강화(reinforcement)의 근원에 대한 개인의 일반화된 기대를 말한다(Rotter, 1966). Rotter에 의하면 이러한 기대는 개인이 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함에 따라 일반화된 것으로 행동결과와 그에 따른 강화간의 인과적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내재적 통제소재와 외재적 통제소재로 구분한다. 내재적 통제소재는 개인이 행동결과에 따르는 강화의 원인을 스스로의 노력, 동기, 태도등 내재적인 것으로 지각하여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믿음이다. 이에

비해 외재적 통제소재는 행동결과에 따르는 강화의 원인을 운, 과제 곤란, 환경등 외재적인 것으로 지각하여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기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외통제소재는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된다. 즉 아동이 자신의 행동과 사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내재적인 것으로 지각할 때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통제는 높아질 것이다. 반면 아동이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의 원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재적인 것으로 지각하면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통제는 낮을 것이다. 아동의 자기통제와 내외통제소재의 직접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통제소재가 내재적일수록 자기통제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Ferrer & Krantz, 1987). 또한 아동의 만족지연능력과 내외통제소재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만족지연능력과 내재적 통제소재의 정적인 관계가 밝혀지고 있다(Strickland, 1973). 유사하게 8~12세의 정상집단과 우울집단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통제와 귀인양식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 의하면 우울을 변화될 수 없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재적인 원인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자기통제도 낮다고 보고되었다(Kaslow, Rehm, Pollack & Alexander, 1990). 이처럼 내외통제소재와 자기통제의 관계는 일관되게 보고되고있어 내외통제소재는 자기통제의 개인차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자기통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므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 내외통제소재와 같은 아동의 개인적 변인이외에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자기통제의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지적되고 있다. 자기통제의 출현은 양육자에 의한 타율적 통제가 기초가 되므로(Kopp, 1982) 어머니가 어떻게 아동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고 어떠한 태도와 행동으로 양육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어머니로부터 따뜻하고 민감한 반응과 유아의 성숙된 행동에 대한 부모의 합리적인 기대

를 경험한 걸음마기 유아들은 더 잘 순응한다 (Kochanska, 1997; Kochanska, Aksan & Koenig, 1995). 그리고 온정적이면서도 자녀의 독립심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절한 통제와 행동조절에 도움이 되며 (Silverman & Ragusa, 1990)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안미경, 1996)과 만족지연능력(이수연, 1985)에 관계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반면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개입하며 위협하고 꾸중하는 어머니는 아동을 더 반항적으로 행동하게 하며 (Crockenberg & Littman, 1990),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이경님, 2001; Kockenska & Aksan, 1995)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어머니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안미경, 1996). 위와 같이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통제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온정적인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와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아동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바람직한 자기통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를 거부하며, 엄격하고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아동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내외통제소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에 도움이 되며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외재적 통제소재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김중희, 1980; 조정래, 1989).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할 때, 아동의 자기통제,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인과모형을 가정할 수 있다. 즉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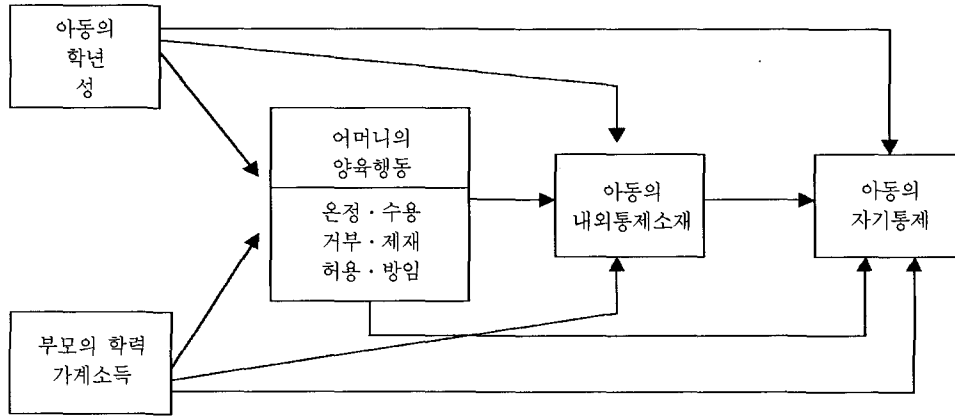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통하여 자기통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이 가정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아동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변인들간의 인과모형을 검증한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더욱이 최근까지의 자기통제 행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통제의 발달이 시작되는 영아기나 학령전 아동에 관한 연구(곽혜경, 1998; 이경님, 2001; 정영숙, 1994)가 대부분이었다. 초등학교 이후 아동기가 되면 적절한 자기통제능력을 획득하며 이시기의 자기통제수준이 지적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4,5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 양육행동의 직접적 영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매개로 자기통제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파악하여 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이들 관련변인들의 인과모형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아동의 자기통제에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나아가 아동의 자기통제를 개선하는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위하여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내외통제소재, 학년, 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부모의 학력, 가계소득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학년, 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부모의 학력, 가계소득간의 직·간접 영향에 대한 가설적 인과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아동의 학년, 성, 부모의 학력 및 가계소득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자기통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내외통제소재를 매개로하여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행



〈그림 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가설적 인과 모형

동,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는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적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통하여 자기통제에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45학년과 6학년 모두 582명의 아동이다. 이들 아동의 연령 대상 선정 이유는 아동은 초등학교 초기 이후 적절한 자기통제를 획득하며(Kopp, 1982),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시기도 아동중기 이후로 보기때문(Harter, 1988)이다. 연구대상아동과 그들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해 먼저 아동의 학년별 성별 분포를 보면 4학년 187명(32%), 5학년 199명(34%), 6학년 196명(34%)이며 남아 295명(51%), 여아 287명(49%)으로 고르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아동의 부모의 학력을 보면 고졸은 어머니 337명(58%), 아버지 266명(46%), 초대졸이상은 어머니 169명(29%), 아버지 253명(43%)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소득은 151-250만원이 287명(49%)으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연구대상아동과 부모의 특징

변수	구분	빈도(%)
학년	4학년	187명(32%)
	5학년	199명(34%)
	6학년	196명(34%)
성	남아	295명(51%)
	여아	287명(49%)
어머니 연령	30세~40세	317명(54%)
	41세~50세	231명(40%)
	51세 이상	7명(1%)
아버지 연령	30세~40세	154명(26%)
	41세~50세	379명(65%)
	51세 이상	20명(3%)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49명(8%)
	고졸	337명(58%)
	초대졸이상	169명(29%)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6명(6%)
	고졸	266명(46%)
	초대졸이상	253명(43%)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77명(13%)
	사무기술직	101명(17%)
	생산, 자영서비스직	292명(50%)
	기타 및 무직	85명(15%)
가계소득	150만원이하	100명(17%)
	151~250만원	287명(49%)
	251~350만원	106명(18%)
	351만원 이상	62명(11%)

* 사례수가 맞지않는 것은 결측인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2. 연구도구

1) 아동의 자기통제

아동의 자기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님(2000)이 개발한 학령기 아동용 자기통제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통제척도는 유혹저항, 과제인내, 친구 관련통제, 교사관련통제, 정서통제와 사려숙고성의 6요인 4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는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아동을 대상으로 자기통제에 대한 개방식 질문을 통하여 문항이 구성되었으며, 요인분석을 통한 구인 타당도와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가 검증되었다(이경님, 2000참조). 본 척도는 기존의 교사, 부모평정용(Kendall & Wilcox, 1979)과는 달리 아동이 지각한 자기통제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유혹저항, .74, 과제인내, .74, 친구 관련통제, .77, 교사관련통제, .72, 정서통제, .71, 사려숙고성, .80, 전체, .91로 나타났다.

2)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측정하기 위하여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아동용 내외통제소재척도(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를 토대로 Connel(1985)의 다차원적 통제지각척도(Multidimensional Measure of Children's Perception of Self-Control)를 참고하여 내재적 통제소재 및 외재적 통제소재를 묻는 각 10개 문항씩 모두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로 구성되었으며 내재적 통제소재를 묻는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외재적 통제소재성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3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영애(1995)의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래의 척도는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세 하위 영역, 모두 80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에서 대표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온정·수용 21문항, 거부·제재 14문항과 허용·방임 8문항 모두 43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어머니를 더 온정·수용적으로, 더 거부·제재적으로, 더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온정·수용, .94, 거부·제재, .91, 허용·방임, .7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부산시의 중류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초등학교를 임의로 표집하여 4, 5학년과 6학년의 18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자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담임교사의 협조 하에 아동에게 질문지가 배부되어 응답하게 하고 바로 회수되었다. 회수된 자료는 모두 625 부이었으나 이중 부실 기재된 자료는 제외되고 모두 582부가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자기통제, 내외통제소재, 학년, 성,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부모의 학력과 가계소득간의 인과모형분석

1) 상관관계

인과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과정

<표 2>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부의 학력	1.00									
2. 모의 학력	.57***	1.00								
3. 가계소득	.30***	.32***	1.00							
4. 온정·수용 양육행동	.11**	-.02	.13**	1.00						
5. 거부·제재 양육행동	-.08*	-.03	-.09*	-.56***	1.00					
6. 허용·방임 양육행동	-.16***	-.10*	-.15***	-.22	.33***	1.00				
7. 아동의 학년	.01	-.00	.07	.03	-.07	.05	1.00			
8. 아동의 성	.07	.04	-.00	-.06	-.14**	-.09*	.01	1.00		
9. 내외통제소재	-.10*	-.13**	-.06	-.31***	.33***	.28***	-.04	-.13**	1.00	
10. 자기통제	.14**	.17***	-.06	.35***	-.27***	-.27***	.02	.14**	-.39***	1.00

* p<.05 ** p<.01 ***p<.001

<표 3>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F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	가계소득	2.38	.13**	.02	10.18**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	성	-2.87	-.13**	.02	9.50**
	가계소득	-1.16	-.09*	.03	7.17**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	아버지의 학력	-1.14	-.13**	.03	15.36***
	가계소득	-.66	-.11*	.04	10.88***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거부·제재양육행동	1.2	.18***	.11	65.88***
	허용·방임양육행동	.29	.21***	.15	49.49***
	온정·수용양육행동	-.052	-.14**	.17	36.38***
	어머니의 학력	-1.26	-.11*	.18	29.24***
아동의 자기통제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76	-.25***	.14	90.95***
	온정·수용양육행동	.34	.23***	.20	68.05***
	허용·방임양육행동	-.56	-.13**	.21	50.52***
	어머니의 학력	4.56	.12**	.22	41.03***
	성	3.59	.08*	.23	33.90***

* p<.05 **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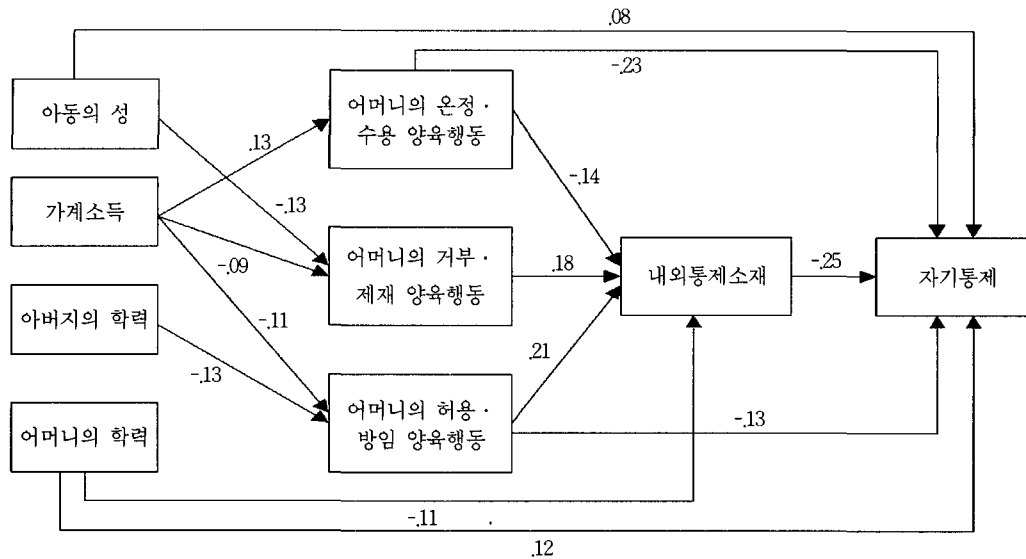
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분석에 포함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독립변인간의 상관계수가 .00에서 .57까지 분포 되고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아동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인과모형에 따라 각

변인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종속변인과 <표 2>에서 그 종속변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난 독립변인들을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종속변인별 인과모형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여 먼저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온정·수용적



〈그림 2〉 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모형분석결과

이었으며 이변인의 설명력은 2%정도였다. 남아가 여아보다,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하였으며 이들 변인의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3%정도였다. 아버지학력이 낮을수록,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하였으며 이들 변인들의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4%정도였다.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적으로, 또한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외재적 통제소재를 지니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내재적 통제소재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이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에 대한 설명력은 18%였다.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어머니의 온정·수용양육행동, 허용·방임 양육행동, 어머니의 학력과 아동의 성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의 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설명력은 23%였다. 즉 아동의 통제소재가 내재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아보다 여아의 자기통

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자기통제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경로분석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에 따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었다. 〈그림 2〉에 의하면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는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beta = -.25,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으로 영향($\beta = .23, p < .001$)을 미치기도 하지만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통하여($\beta = -.14, p < .01$)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인 영향($\beta = -.13, p < .01$)을 미치기도 하지만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통하여($\beta = .21, p < .001$)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통하여 ($\beta = .18, p < .001$) 아동

〈표 4〉 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각 변인의 인과효과

독립변인	인과적 효과		
	직접적 효과	간접적 효과	총 효과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25	-	-.25
온정·수용 양육행동	.23	.04	.27
거부·제재 양육행동	-	-.05	-.05
허용·방임 양육행동	-.13	-.05	-.18
어머니의 학력	.12	.03	.15
아버지의 학력	-	.02	.02
가계소득	-	.04	.04
아동의 성	.08	.02	.10

의 자기통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beta=.12, p<.01$) 미치기도 하지만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통하여($\beta=-.11, p<.05$)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통하여($\beta=-.13, p<.01$)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가계소득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beta=.13, p<.01$), 거부·제재 양육행동($\beta=-.09, p<.05$)과 허용·방임양육행동($\beta=-.11, p<.05$)을 통하여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의 성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인 영향($\beta=.08, p<.05$)을 미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통하여($\beta=-.13, p<.01$)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 변인이 아동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한편 아동의 학년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4, 5학년과 6학년 동안의 아동의 자기통제는 안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 5학년 및 6학년 아동을 대

상으로 아동의 자기통제에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밝히고 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이들 관련변인들간의 인과모형을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통제는 아동의 통제소재가 내재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일수록 덜 허용·방임적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아보다 여아가 높으며, 이들 변인들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23%였다. 이중 아동의 내외통제소재가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어머니의 온정 수용 양육행동, 허용·방임 양육행동, 어머니의 학력과 아동의 성의 순으로 자기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가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3학년과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내재적 통제소재가 높은 아동이 자기통제가 높다는 연구(Ferrer & Krantz, 1987),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와 만족지연능력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연구(Strickland, 1973)와 일치하였다. 이는 자신의 행동결과와 그 원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아동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통제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자신의 행동결과와 그 원인을 자신의 통제 밖의 외재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통제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내외통제소재는 아

동의 자기통제의 개인차에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적이고 수용적으로 지각한 아동이 자기통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동에게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합리적인 행동기준을 선정하는 어머니가 아동의 순응행동을 촉진시키며(Kochanska & Aksan, 1995), 온정적이면서도 자녀의 독립심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절한 통제와 자기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안미경, 1996; Silverman & Ragusa, 1990)과 일맥상통하였다. 이로써 어머니의 온정 수용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긍정적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자기통제는 낮아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신체적 처벌을 하거나 야단을 치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오히려 아동의 반항적 행동을 야기한다는 연구(Crockenberg & Littman, 1990),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경남, 2001)와 일치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방임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의 자기통제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아동을 무시하고 아동에게 무관심한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을 경험한 자녀들은 미성숙하고 무책임하다는 결과(Patterson, Capaldi, & Bank, 1992)와 유사하였다. 이로써 어머니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를 낮추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변인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여아는 남아보다 자기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학년에서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여아의 자기통제가 남아보다 더 높다는 보고(Kandall & Wilcox, 1979)와 4학년과 5학년의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통제가 더 높다는 보고(Humphrey, 1982)와 일치하였다. 내외통제소재를 종속변인으로 한 결과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통제소재는 내재적이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허용·방임적이고 또한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은 외재적 통제소재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이 내외통제소재에

미치는 영향력은 18%였다. 이중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애정을 바탕으로 아동을 수용하고 존중할 때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를 발달시킨다는 여러 선행연구(김종희, 1983; 조정혜, 1989)와 일치한다. 이로써 어머니의 따뜻하고 온정적인 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통제소재를 내재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제재적 일수록 아동은 외재적 통제소재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거부적이고 지배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외재적 통제소재와 관계가 있다는 연구(김종희, 1983)와 일치하였다. 또한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더 외재적 통제소재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동을 거부하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통제하는 양육행동과 방임하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통제소재를 외재화하는 가족환경변인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는 어머니의 학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은 내재적 통제소재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아동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인과모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인과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에게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통제소재를 내재화하여 자기통제를 높여주는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나,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아동의 자기통제에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 어머니의 학력, 아동의 성,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 가계소득, 아버지의 학력 순으로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는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자기

통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기술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아동의 외재적 통제소재를 내재화하게 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통제소재를 외재화하여 간접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아동에게 무관심하고 방임하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 요인이 된다는 주장(Baumrind, 1991)과 유사하다. 이로써 아동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자기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은 아동이 자기통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학력의 어머니는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뿐 아니라, 아동의 통제소재를 내재화하는데도 도움이 되어 자기통제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배경변인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내외통제소재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는 남아보다 자기통제가 더 높으며, 또한 여아는 남아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덜 거부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여아의 내재적 통제소재를 높게 하여 자기통제를 더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내외통제소재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아동의 통제소재를 외재화하여 자기통제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를 높여주는 중요한 보호요인이며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

의 자기통제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매우 중요한 환경변인이므로 아동의 자기통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교육 내용이 함께 포함되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가계소득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통하여 아동의 자기통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더 온정·수용적이며 덜 거부적이고 방임적이 되어 아동의 자기통제에 도움이 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내외통제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아동은 더 높은 내재적 통제소재를 가지며 이는 자기통제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과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기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은 아동은 부모로부터 더 많은 상호작용이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자극의 기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동의 자기통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추측된다. 그러나 배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단정적 해석은 어렵다고 본다. 한편 아동의 학년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이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5학년과 6학년의 아동의 자기통제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의 아동의 자기통제에 학년 차가 없다는 연구(Kendall & Wilcox, 1979)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통제는 4, 5학년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Humphrey, 1982)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후기동안의 자기통제는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통제의 발달을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는 아동의 통제소재가 내재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일수록, 덜 허용·방임적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아보다 여아가 더 높았으며, 이들 변인들은 아동의 자기통제를 23% 설명하였다.

둘째, 아동의 자기통제에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과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 어머니의 학력, 아동의 성,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 가계소득, 아버지의 학력의 순으로 자기통제에 대한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는 가장 큰 직접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자기통제에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직접적인 부정적 효과 뿐만 아니라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간접적인 부정적 효과도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내외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계소득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어머니의 온정·수용,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며 직접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학력은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아동의 학년은 자기통제에 어떠한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

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개인 내적 변인으로 내외통제소재와 가족환경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간의 상호 인과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아동의 정의적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지적변인으로 사려성 및 부모 훈육형태의 가족환경, 교사의 통제와 같은 교실환경등 환경변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변인들이 모두 함께 포함된 복합적 인과모형을 검토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자기통제에 한정되고 있으나 자기통제는 객관적인 타인의 평가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교사평가, 부모평가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측정이 함께 이루어져 좀 더 상세한 인과모형분석의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곽혜경(1998). 유아의 기질, 유아가 제공한 통제계기, 어머니의 통제 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종희(1983). 아동의 내외통제신념과 지각된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학지사. 서울.
- 안미경(1996).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님(1997). 인지적-행동적 자기통제훈련이 아동의 자기통제능력과 과제해결능력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3(1), 123-143.
- 이경님(2000). 아동의 자기통제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7(1), 99-120.
- 이경님(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 아동의 사려성, 자아개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 39(2), 97-110.
-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조정왜(1988). 학령전 아동의 통제와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1994).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수경, 이경남(1996). 인지양식유형과 보상의 제시 형태에 따른 아동의 만족지연능력발달. 아동학회지, 17(2), 221-233.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91-215.
- Baumrind, D. (1991). Effective parenting during the early adolescent transition. In P. A. Coway & E. M. Hetherington (Eds.). *Family transition*. 111-164. Hillsdale, NJ: Erlbaum.
- Beckwith, L., Rodning, C., & Cohen, S. (1992). Preterm children at early adolescence and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maternal responsiveness from infancy. *Child Development*, 63, 1198-1208.
- Berk, L. E. (1997). *Child Development(4th)*. Allyn and Bacon.
- Connel, J. P. (1985). A new multidimensional measure of children's perception of control. *Child Development*, 56, 1018-1041.
- Crockenberg, S. & Littman, C. (1990). Autonomy as competence in 2-year-olds: Maternal correlates of child defiance, compliance, and self-asser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61-971.
- Feldman, S. S. & Wentzel, K.R. (1990). Relations among family interaction patterns, Classroom self-restrai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preadolescent boy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4), 813-819.
- Ferrer, M. & Krantz, M. (1987). Self-control, Locus of control social status in 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60(2), 355-358.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 Muesse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275-385.
- Harter, S. (1988). Developmental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In T. D. Yawky & J. E. Johnson(Eds.). *Integrative processes and socialization : Early to middle childhood*. W. J.: Erlbaum.
- Humphrey, C. C. (1982). Children's and teacher's persecutive on children's self-control: The development of two rating scale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0, 624-633.
- Hunter, J. E. & Hunter, R. F. (1984). Validity and utility of alternative predictors of job performance. *Psychological Bulletin*, 96, 72-98.
- Kaslow, N. J., Rehm, L. P., Pollack. S. L., & Siegel A. W. (1988). Attribution style and self-control behavior in depressed and nonrepress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2), 163-175.
- Kendall, P. C. & Willcox, L. L.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7(6), 1020-1029.
- Kendall, P. C. & Braswell, L. (1985). *Cognitive-behavioral self-control therapy for impulsive children*. New York: Guilford Press.
- Kochanska, G. (1997).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implications for early socialization. *Child Development*, 68, 94-112.
-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236-254.
- Kochanska, G., Aksan, N., & Koenig, A. L. (1995).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oots of preschooler's

- conscience: Commuted compliance and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1752-1769.
- Kopp, C. B.(1982). The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2, 109-214.
- Loevinger, J. & Wessler, R. (1970). *Measuring ego development(Vol,1)*. San Francisco : Jossey-Bass.
- Mischel, H. N. & Mischel, W. (198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of self-control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53, 603-619.
- Newman, D. L., Caspi, A. Moffiti, T. E., & Silva, P. A. (1997). Antecedents of adult inter personal functioning :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ge 3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06-217.
- Nowicki, S., & Strickland, B. R. (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0, 148-154.
- Patterson, G. R., Capaldi, D., & Bank, L. (1992). Two paths to delinquency: The early and late starter models In K. B. Rubin & D. Pepler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Erlbaum
- Rose, A. (1991). The relationship of self-controlling skills to personal and socia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Doctorial dissertation, Biola University.
- Rotter, J. B. (1996). General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30, (Whole No. 609).
- Schaffer, D. R.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5th ed)*. California, Books/cole.
- Schoda Y, Mischel, W., & Peake, P.K. (1990). Predicting adolescent cognitive and self-regulatory competencies from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Identifying diagnostic condi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78-986.
- Schwarz, J. C., Schrage, J. B., & Lyons, A. E. (1983). Delay of gratification by preschoolers: Evidence for the validity of the choice paradigm. *Child Development*, 54, 620-625.
- Silverman, I. & Ragusa, D. M. (1990). Child and Maternal correlates of impulse control in 24month-old children: Correction, Genetics, *Social &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6(4), 435-473.
- Strickland, B. R. (1973). Delay of gratification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i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0, 338.
- Toner, I. J. & Smith, R. A. (1977). Age and overt verbalization in delay-maintenance behavior in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4, 123-128.
- Ward, W. (1973). *Disadvantaged Children and their first school experience*. Princeton, NJ: ETS.